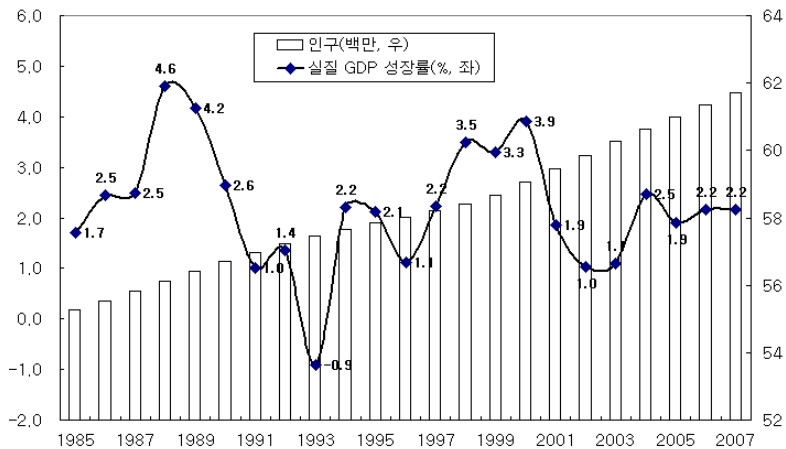


IV. 프랑스

- FY 2009년 : 2009년 1월~2009년 12월
- 출처 : LFI 2009: Loi de Finances Publiques('08년 12월),
LFR: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09년 2월)
PLFR 2: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09년 3월)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ees 2009 à 2012('09년 2월)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es ('09년 3월)
EU Commission('09년 1월)
OECD Economic Outlook ('08년 12월)
- 환율 : 1 EUR =1600.77원 (2008년 평균)
- 경제규모(IMF기준) : 2007년 경상GDP 2조 5,938억 달러(우리나라 2.7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비율(명목) : 2007년 기준 57.8%(우리나라 90.4%)
- 인구: 64.3백만명 (Bilan démographique 2008)
- 지난 10년간의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을 덜 받았으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
 - 세계경제위기가 악화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프랑스경제 전망을 수정하고 있으며 3월 현재 2009년 경제성장률을 -1.5%로 발표
 - 투자, 수입 및 수출 등은 지난 4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구매력은 지난 4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으나 실업률 등의 요인으로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실업률은 지난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9.8%일 것으로 전망
- 금번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인해 추가적인 세입감소 및 경기부양 세출증가로 인해 정부적자 및 공공부채가 가중되고 있음('09년 3월기준)
 - '09년 3월 현재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6%(1,038억 유로)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GDP 대비 2.9%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공공부채 역시 재정적자 증가로 인하여 GDP 대비 73.9%로 전망
- 프랑스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위기를 반영, 지난 12월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 1차 경기부양책(Plan de Relance): 총 260억 유로(GDP의 1.3%)
 - ※ 국회통과된 경제회복정책 예산은 232억 유로(GDP의 1.1%)임
 - 기업자금지원, SOC 투자, 교육 및 연구개발 활성화, 자동차산업 및 건설산업 자금 지원, 환경 및 에너지 사업 투자, 감세정책 등이 주요내용임
 - 경제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1차 경기부양책이 금융권의 자금유동성 결여로 인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2차 경기부양책 ('09년 3월)
 - Pacte Automobile:자동차산업 지원 (69억 유로 지원)
 - Les suites du Sommet Social:사회투자기금 조성 (26억 유로 지원)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프랑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악화로 거시경제 및 예산기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발표

※ 프랑스 정부가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은 타기관의 전망치보다 긍정적이었으나 2차 수정예산(PLFR 2)에서는 비슷한 전망을 보임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10억 유로, %)

	2007	2008	2009 (예산안)	2009 (LFI)	2009 (PLFR2)	2010
GDP Total	1,892	1,958	2,020	-	-	-
실질성장률	2.2	1.0	1~1.5	0.2~0.5	-1.5	1.0
명목성장률	4.7	3.5	3.1	-	-	-
실질구매력 증가율	3.3	1.0	2.0	1.5	1.4	1.0
가계지출 증가율	2.5	1.1	1.9	-	0.4	1.2
기업투자 증가율	7.4	2.0	2.0	-	-7.0	3.7
수출증가율	3.1	1.6	2.2	-	-4.8	0.3
수입증가율	5.5	1.5	2.1	-	-4.4	1.4
무역수지(10억 유로)	-39.3	-49.8	-49.0	-	-33.8	-34.7
물가상승률	1.5	2.9	2.0	1.5	0.4	1.4
재정수지 (GDP 대비비율)	-2.7	-2.7	-2.7	-4.4	-5.6	-5.2

자료: Les chiffres clés (2008년 상반기 수치), LFI ('08년 12월), PLFR 2('09년 3월)

□ 프랑스 정부는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추가적인 경기부양 세출 증가, 세입 감소 등으로 '09년 3월 제2차 수정예산(PLFR 2) 발표

○ 당초 예산안에서는 GDP 성장률을 1~1.5%로 예상하였으나, 2009년 11월에는 0.2~0.5%로, '09년 3월 -1.5%로 수정 발표

※ EU 집행위원회('09년 1월)는 GDP 대비 -1.8%로 예상

※ '09년 3월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는'09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

- (물가상승률) 2009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약 0.4%로 하락, 2010년에는 1.4%일 것으로 예상
 - 석유가격의 하락(\$97('08 평균)→\$43('09))은 물가상승률 둔화에 큰 영향
 - (환율) 달러대비 유로환율 하락으로 프랑스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예산안 전망치 1.45 달러에서 1.33 달러로 수정
 - (구매력) 물가상승률의 안정세로 인해 구매력은 신규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실업률) 프랑스의 실업인구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크게 증가(11만 7천명)한 후 금년 상반기에 38만 7,000명이 증가해 실업률이 8.8%를 기록¹⁾ 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정부는 2008년에 비해 총고용이 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09년 3월)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빠르게 대처하였다고 평가
 -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간 대출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
 - 이전의 사르코지가 시행한 경제정책(고용 및 투자중심) 으로 인해 그 충격이 완화되었다고 평가
 - 사업소세 감소, 중소기업신용보증 등으로 기업 지원
 -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에 의하면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을 덜 받았으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
- 2009년 3월 제2차 수정예산안(PLFR 2)에서는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추가경기부양세출 및 세입감소로 인해 재정수지적자는 1,038억 유로(GDP 대비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

※ '09년 3월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6% 이상까지 증가, 이에 따라 공공부채 역시 GDP 대비 80% 이

1) 프랑스 정부는 고용인구 증감만 발표하므로 프랑스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의 자료 이용

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EU는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GDP 대비 마이너스 1.8%로 사상최악의 경기침체를 전망
(‘09년 1월)

<표 IV-2> 연도별 프랑스 경제지표 및 전망

(단위 : 10억 유로, %)

구분	2007년		‘05	‘06	‘07	‘08	‘09	‘10
	경상 가격	구성비						
GDP(전년도 가격)	1,892.2	100.0	1.9	2.2	2.2	0.7	-1.8	0.4
개인 소비	1,072.0	56.7	2.6	2.3	2.4	1.1	0.1	0.3
공공 소비	438.0	23.1	1.2	1.3	1.4	1.7	1.5	0.9
고정자본형성 총액	406.3	21.5	4.4	4.8	4.9	-0.2	-5.3	-0.6
- 설비 투자	105.3	5.6	3.2	2.8	5.8	1.3	-7.8	-0.4
수출(상품 및 서비스)	501.9	26.5	3.1	5.4	3.1	1.5	-3.5	1.3
수입(상품 및 서비스)	538.3	28.4	5.9	6.1	5.5	2.3	-1.4	0.7
GNI(전년도 가격)	1,902.1	100.5	1.7	2.2	2.0	0.6	-1.8	0.4
고용(증감률)	-	-	0.6	0.8	1.4	0.8	-1.9	-0.7
실업률 (EUROSTAT 기준)	-	-	9.2	9.2	8.3	7.8	9.8	10.6
고용비용 (세금 전 가격)	-	-	3.1	3.4	2.9	2.6	2.1	2.0
전체 경제 단위노동비용	-	-	1.8	2.0	2.1	2.7	2.1	0.8
실질 단위노동비용	-	-	-0.3	-0.5	-0.4	0.3	0.1	-0.7
가계 저축률	-	-	---	14.9	15.6	15.6	16.0	15.8
GDP 디플레이터	-	-	2.0	2.5	2.5	2.4	2.0	1.6
소비자물가	-	-	1.9	1.9	1.6	3.2	0.8	1.5
무역수지(GDP 대비)	-	-	-1.3	-1.5	-2.0	-2.9	-2.8	-2.7
경상수지(GDP 대비)	-	-	-1.8	-2.1	-2.8	-3.8	-4.0	-3.9
정부재정수지 (GDP대비)	-	-	-2.9	-2.4	-2.7	-3.2	-5.4	-5.0
정부 부채(GDP대비)	-	-	66.4	63.6	63.9	67.1	72.4	76.0

자료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KOTRA Global Window 참조

- 프랑스는 2008년 0.7%의 실질성장률(전망치 1%)을 기록한 후 2009년에는 예상보다 크게 낮은 마이너스 성장(-1.8%)을 할 것이며 2010년 들어 다소 회복되어 0.4% 성장할 전망
- 투자 감소
 - 2007년 5.8%에 달한 설비투자는 2008년 1.3%로 크게 둔화된 후 2009년에 크게 감소(-7.8%)했다가 2010년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나 여전히 감소세(-0.4%)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신용경색 현상이 향후 수개월 간 지속될 전망이고 대출규모가 부족한 상태이며 수주 전망 및 생산시설 가동률이 나빠 민간기업들이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 않는 데에 기인
 - 한편, 공기업들의 투자 증가 및 경기부양계획에 힘입어 2010년 기업투자 감소 현상은 억제될 전망
- 고용 감소 및 실업률 급증
 - 2007년 약 23만 명 감소에 이어 2008년 상반기 중 2만명이 감소한 실업인구는 2008년 하반기에 14만 7,000명 증가 후 2009년 상반기에 21만 4,000명 증가되는 등 1.9%의 감소율을 기록한 후 2010년 0.7% 감소할 전망
 - 이 결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8년 7.8%에서 2009년 9.8%로 악화된 후 2010년에는 10.6%로 치솟아 1999년 이래 지켜오던 10% 방어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소비 정체
 - 프랑스 소비자들은 급증하는 실업률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생활비를 줄여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프랑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가계 소비는 저물가(2009년 0.8% 및 2010년 1.5%)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2009년 0.1% 및 2010년 0.3%)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 및 공공 부채 증가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은 경제성장률 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늘어난 후 2009년에는 260억 유로의 경기부양, 105억 유로의 구제금융

(2차 안) 및 50억 내지 60억 유로의 자동차산업 구제금융 계획(안)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전망

- 공공소비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009년 1.5% 및 2010년 0.9%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EU가 정한 3%선을 2008년(3.2%)에 이미 넘어선 후 2009년에 최고치(5.4%)에 달한 후 2010년 5%선으로 낮아질 전망

- 따라서 공공부채 비율(GDP대비)은 2008년 67.1%에서 2009년 72.4% 및 2010년 76%로 늘어날 전망

○ 물가상승률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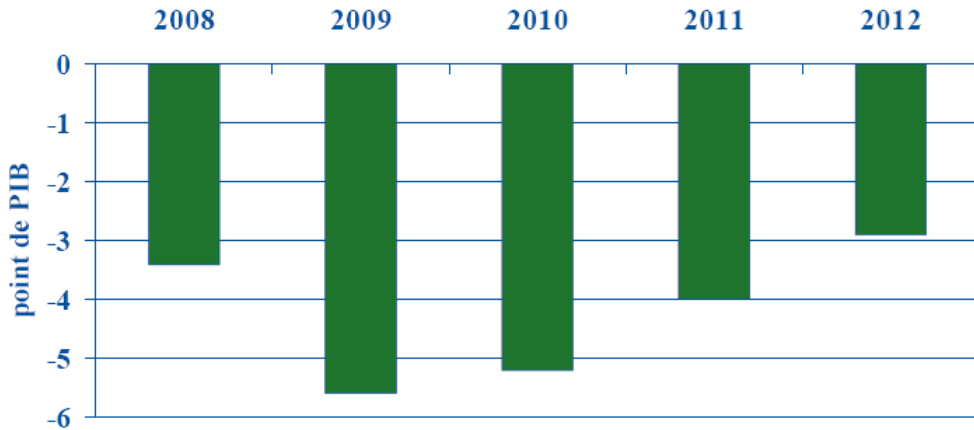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3.6%에 달한 후 원자재 및 원유 가격의 하락 덕분에 4/4분기중 급격히 낮아져 2008년 3.2%를 기록할 것이며 2009년 및 2010년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 결과 0.8% 및 1.5%에 머물 전망

○ 구매력 감소

- 2007년 3.3%에 달했던 구매력은 2008년 상반기 고물가 및 하반기 이후 고용 악화로 인해 약화될 전망이나 올 4분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저물가 현상에 힘입어 다소 만회해 2008년 1.1% 및 2009년 상반기 0.6% 수준을 기록할 전망

나. 재정상황과 전망

[그림 IV-1] 재정적자 추이(GDP 대비)



자료: PLFR 2 ('09년 3월)

□ 금번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인해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부담이 늘어남

○ (재정수지 악화) 2009년 재정적자(일반회계기준)는 GDP 대비 5.6%(1,038억 유로)로 증가하며, 점차 회복되어 2012년에는 GDP 대비 2.9%까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

※ '09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프랑스 재정적자를 GDP 대비 5.4%로 전망

※ '09년 3월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6% 이상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재정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대응정책 예산규모: 260억 유로('08년 12월), 96억 유로('09년 3월)) 재정적자 가중

- 프랑스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제외하면 재정적자는 422억 유로라고 보고 있음

<표 IV-3> 주요 재정수지

(단위 : 10억 유로, %)

GDP 대비	2008	2009
재정적자	-3.4	-5.6
국민부담률증가율	42.9	42.5
재정지출증가율	1.2	3.2
공공부채	67.3	73.9

자료: PLFR pour 2009(2009.3)

-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2008년에 비해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약 3,706억 유로, 2009년 3월 기준)
- (공공부채) 공공부채는 재정적자의 증가로 인해 GDP 대비 7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2008년: GDP 대비 67.3%)
-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42.5%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2. 2009년 예산기조 및 분야별 예산

가. 2009년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08년 12월)

- (재정지출통제로 건전재정 추구)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통제
 - 공공지출 감소는 국민부담률을 낮춰 궁극적으로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 프랑스는 중장기적으로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한 비용지출을 감안하여 관련제도 개혁을 통한 균형재정수지 유지
 - 특히 의료보험(ONDAM: Objectif national de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관련 지출의 엄격한 관리 추진
 - 이러한 재정지출통제는 더욱 강화, '09~'12년 다년도예산안에서도 통제되어 정부 지출 전 부문에서 물가상승률+1.1% 범위 안에서 조정
 - ※ 프랑스의 다년도 예산(3개년도)은 프로그램예산체제의 도입으로 실행하게 되었음

<표 IV-4> 2009년 프랑스 재정지출

(단위 : 10억 유로)

단위:10억 유로	2008	2009(예산안)	2009 (LFI)
EXPENDITURE OF THE GENERAL BUDGET	271.3	278.5	286.9
of charges of the debt	41.2	44.3	-
of pension	33.6	36.0	-
of personal, operation, investment and interventions	196.5	198.2	-
LEVIES ON RECEIPTS	69.6	71.3	73.6
of which taking away with the profit of the local authorities	51.2	52.4	-
of which taking away with the profit of the European Union	18.4	18.9	-
Total Expenditure	340.9	349.8	360.5

자료: PLF 2009 ('08년 상반기), LFI 2009 ('08년 12월)

□ (서비스부분 경쟁력 강화) 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투자정책

- 고등교육과 R&D 분야에 20억 유로 이상 투자
- 2008년 연구투자액에 대한 감세액지급환불정책(CIR) 개혁에 의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을 첫 해에 50%, 그 뒤에는 30%까지 환급 (2009년 환불금액: 약 6억 2천만 유로)
- (국방비 증액)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보력 강화를 통한 국방 현대화 계획에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투자

○ 조세정책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연간 원천과세(Imposition Forfaitaire Annuelle, IFA)¹⁾를 점진적으로 폐지

<표 IV-5> 2009년 연간 원천과세(IFA) 과세기준

(단위 : 유로)

매출	과세액
1,500,000 ~ 7,500,000	3,750
7,500,000 ~ 15,000,000	16,250
15,000,000 ~ 75,000,000	20,500
75,000,000 ~ 500,000,000	32,750
500,000,000 이상	110,000

자료:www.impots.gouv.fr

- 2009년부터 매출규모가 150만 유로이하인 법인은 면세 (이전에는 매출규모 40만 유로 이하 법인만 면세) 따라서 2009년부터 21만개의 기업이 IFA로부터 면세되

1)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연간도급세인 IFA를 납부해야 함.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2003년부터 매출 4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연간 도급세(IFA)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며 그 규모는 3억 3,600만 유로임

- 2010년부터는 면세범위가 확대되어 매출규모 1,500만 유로인 기업은 IFA 면세,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13만개 기업이 IFA 면세
- 2011년부터는 IFA는 완전히 폐지됨

○ 환경친화정책

- 프랑스 민관 친환경 작업반(Grenelle de l'environnement)이 주축이 되는 지속가능개발정책에 2009~2011년 동안 12억 유로 투자
- 이 중 5억 유로는 프랑스 민관 친환경 작업반(Grenelle de l'environnement) 관련 정책에 우선적으로 사용됨

○ 사회복지정책

- 사회적 연대소득 (RSA: La création d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도입을 통해 경제효율성 및 일을 통한 복지 강조

Box1: 사회적 연대소득: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 실직자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게 되면서 받는 임금이 실업상태에서 받던 국민생활 보조금(RMI)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EITC와 유사한 개념
-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 1.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자본소득에 2008년 11%에서 2009년부터 12.1%로 인상됨
- 위기대응정책 중 일환으로 가구당 200 유로 지원
- 예산규모 7억 6천만 유로로 총 혜택 예정 가구는 3,800만 가구임
- 2/4분기까지 지급예정이었으나, 1/4분기 내에 조기 지급완료 약속

나. 재정수입 (LFI, PLFR 2009)

- 재정수입(2009년 LFI기준)은 2,594억 유로로 2008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2차 수정예산(PLFR2 2009기준)에서는 2,077억 유로로 감소 전망
 - 순조세수입은 2,594억 유로로 예산(2009년 LFI 기준)보다 144억 유로 감소
 -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
(법인세는 예산안보다 50억 유로 감소, 소득세는 90억 유로 감소됨)
 - 감세 및 환급으로 인한 세액 감소
 - 비조세수입은 226억 유로로, 2008년 결산 대비 20억 유로, 2009년 예산(2009년 LFI) 대비 10억 유로 감소
 - 지방정부와 EU 보조금의 경우,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증가

<표 IV-6> 2009년 재정수입

(단위: 10억 유로, %)

	2008	2009			변동사항
	집행	LFI	LFR1	PLFR2	PLFR2/LFR1
소득세(IR)	51.8	52.5	52.5	50.4	-1.0
법인세(IS)	49.2	42.4	37.9	37.4	-0.5
석유세 및 석탄세(TIPP)	16.1	15.3	15.3	15.1	-0.2
부가가치세(TVA)	129.8	132.7	130.2	126.7	-3.5
기타 세수입	18.4	16.5	16.4	15.4	-1.1
순조세수입	265.3	259.4	252.4	245.0	-6.3
비조세수입		22.6	22.6	21.5	-1.1
부속회계수입 (Budgets Annexes)		21.2	21.2	21.1	-0.1
특별회계수입 (Competes Spéciaux)		156.0	159.0	159.0	0
1차 수정예산(LFR)에 비해 감소된 총세수입					-7.5

자료: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09 (PLFE 2009)

다. 재정지출

<표 IV-7> 지출세부내역

(단위: 10억 유로)

Program	2009	2010	2011
Action external of the State	2.51	2.55	2.52
General and territorial administration of the State	2.59	2.62	2.55
Agriculture, fishing, food, forest and businesses rural	3.48	3.16	3.03
Government aid with the development	3.15	3.24	3.24
War veterans, memory and bonds with the nation	3.47	3.45	3.34
The Council and control of the State	0.55	0.57	0.59
Culture	2.78	2.80	2.81
Defense	37.34	38.03	38.58
Direction of the action of the Government	0.54	0.51	0.51
Durable ecology,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9.92	10.17	9.17
Economy	1.94	1.92	1.93
Secondary education	59.91	61.53	62.78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and human resources	11.32	11.52	11.51
Immigration, asylum and integration	0.51	0.51	0.51
Justice	6.63	6.92	7.02
Media	1.01	1.00	0.99
Overseas	1.87	1.93	1.91
Policy of the territories	0.37	0.38	0.36
Seek and higher education	24.10	24.95	25.70
Social modes and of retirement	5.21	5.45	5.75
Relationships to the territorial collectivities	2.49	2.42	2.47
Health	1.15	1.17	1.19
Safety	16.19	16.60	16.92
Civil security	0.42	0.42	0.43
Solidarity, insertion and equal opportunity	11.14	11.58	12.13
Sport, youth and community life	0.79	0.77	0.75
Work and employment	12.16	10.74	10.51
City and housing	7.66	7.53	7.37
Financial liabilities of the State	44.64	46.75	49.19
Provisions	0.21	0.75	1.24
Revival program of the economy	10.28	1.56	0.00
Resumption of measurement "advances" of the revival program	0.00	- 0.50	- 0.50
Public authorities	1.02	1.03	1.05

자료: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09 à 2012

- 재정지출 통제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출내역이 2008년과 거의 유사
 - 프랑스 재정지출은 세금환급정책 등으로 인해 691억 유로로 2008년 대비 약 4% 증가
 - 국방 예산은 예외적으로 증액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약 6억 유로 증액
 - 국방 현대화를 목표로 첩보위성 발사와 정보요원 700명 증원, 미사일 경보체제 구매에 투자할 예정
 - ※ 경제위기로 인해 2009~2011년의 국방비지출을 동결하나 나머지 2년 동안 국방비 증액분을 모두 지출하는 방안 제시

-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Plan de Relance)에 약 191억 유로 ('08년 12월), 추가적인 경제위기 대응정책인 자동차산업지원에 69억 유로('09년 2월), 사회정책지원기금에 26억 유로('09년 2월) 및 기타 추가경제 대응정책에 1억 유로 ('09년 2월) 지출 예정
 - ※ 세부내역은 '제3장 경제위기 대응정책' 참조

3. 경제위기 대응정책

-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
 - 1차 지원정책: 은행간 대출용 3,600억 유로의 공적자금 투입
 - 3,600억 유로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간 대출보증과 은행의 부분 국유화 실시
 - 프랑스 은행들은 3,600억 유로의 지원계획 대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약속을 함
 - 피용총리는 10월 20일 은행들이 경제활동 용자를 위한 대출총액을 연3%에서 4%로 증가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표
 - 2차 지원정책: 기업 및 개인 대출용 105억 유로 및 지자체 운영자금용 50억 유로 지원
 - 3차 지원정책: 실업구제정책
 - 2009년도 정부지원 고용계약 (contrats aidés) 규모 확대하여 약 33만명이 수혜를 받을 예정 (1억 5천만 유로에서 2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비정규직 고용조건 완화
- 직업변경계약 지원정책의 적용지역 확대
- 국가고용센터(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 ANPE)와 실업보험담당기구(Assedic)의 합병 작업을 가속화하여 실업자 직업알선 및 실업수당 지원업무의 효율성 강화 추구
- 기술 및 환경친화산업 관련 직업 창출 사업
- 휴일근무 허용
- 직업전환계약 'professional transition contracts' (CTP) 적용지역 확대

Box 2: 직업전환계약 'professional transition contracts' (CTP)²⁾

근로자수 1,000인 미만 기업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단체해고시, 사용자는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재배치협약을 제안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최장 8개월간 직업훈련생의 신분으로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첫 3개월간은 근로계약 종료 전 1년간의 평균 임금의 80%, 나머지 5개월간은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경제회복정책(Plan de Relance) - 2008년 12월 4일
 - 2008년 10월 연속적으로 발표된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각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여 정리 발표
 - 경기위기 대응책은 2008년 및 2009년 수정예산내용 (추경과 유사) 에 포함
 - ※ 프랑스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형식이 있으나, 원 예산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함
 - 프랑스의 경제회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총 260억 유로 지출 예정(GDP의 1.3%)
 - ※ '09년 1월 국회통과된 경제회복정책 예산은 232억 유로(GDP의 1.1%)임

2) 『경제위기와 프랑스의 최근 고용정책동향』, 이정원(프랑스 리옹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기업자금 지원에 116억 유로 지출예정, 주로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활용
- 공공부문 투자에 105억 유로,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진흥정책 등 중앙정부정책에 40억 유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40억 유로, 지방정부 활성화에 25억 유로 집행예정
- 경제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건설과 자동차분야에 20억 유로 직접 투자 예정
- 고용 증진과 가계수입 지원에 20억 유로 지출 예정

○ 2008년 집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택대출이자 0%로 주택구입장려정책
- 투자유치를 위한 감세정책(사업소세 감세 등)
- 사회보장세 잉여부분 및 부과세 환급 등을 통한 기업자금지원정책

□ (2009년) 2009년 관련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재정정책

- 기업투자 활성화: 사업소세³⁾ (Tax Professionale)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 기업자금지원(110억 유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구투자액에 대한 감세액(CIR) 지급환불 조기지급(40억 유로)
 - ② 부과세환급(30억 유로)
 - ③ 결손금이월공제(18억 유로)
 - ④ 조기투자집행(6억 유로)
 - ⑤ 방위산업 중소기업체 자금 조기지급(5억 유로)
 - ⑥ 공공조달계약 5%에서 20% 증가를 통해 기업자금지원(10억 유로)
- 주택대출금리를 0%로 인하. 대출한도는 32,500 유로에서 65,100 유로로 상향 조정

○ 공공투자 관련 정책 (105억 유로)

- (공공부문투자: 40억 유로) 이러한 투자는 주로 인프라 구축(교통, 고등교육 및

3) 대표적인 지방세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됨. 납세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당국이 매년 정한 세율을 적용

연구 투자 등)에 지출될 예정

① 사회기반시설구축 : 10.7억 유로

- TGV 철로사업, 센스강 운하사업
- 리옹-토리노 철로사업
- 항구관리 및 농촌개선사업
- 도로 보수 및 개선 사업 등

② 고등교육 및 R&D : 7.3억 유로

- Plan Campus(프랑스 대학 건물 개선 계획) 등

③ 방위 및 치안 : 15.2억 유로

- 군사력 강화 (14.2억 유로)
- 치안강화 (1억 유로)

④ 문화유산관련 사업 : 6.2억 유로

-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진정책: 56억 유로) 고용증진을 위해 소기업 채용지원정책, 중고자동차 신차로 교체시 지원,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에 지출 예정

㉠ 중소기업 대출: 2.2억 유로

㉡ 공공조달 확대: 10억 유로

㉢ 중고자동차 대체 신차구입: 2.2억 유로

㉣ 소기업 고용증진정책: 예산규모는 총 7억 유로,

10인 이하 사업체 신규고용시 인당 최저임금의 1.6배까지 지원

⑤ 해고 및 실직자 지원: 5억 유로

⑥ 전략적 투자 펀드 기금(FSI): 30억 유로

- (건설 및 사회연대책임관련 정책: 19억 유로) 건설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 소외계층 지원에 지출 예정

① 공공(임대) 주택 건설: 3.9억 유로

② 도시개발사업: 3.5억 유로

- ③ 에너지친화주택사업: 2억 유로
- ④ 난민수용소 관련 사업: 2.1억 유로
- ⑤ 사회적 연대소득 추가 지원: 7.6억 유로 가구당 200 유로를 지원, 38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

<표 IV-8> 경제재건계획(1차) 프로그램 예산

(단위: 100만 유로)

연도	2009	2010
Mission: 경제재건계획	9,852	1,561
Program: 공공부문투자	2,687	1,414
Action 01: 사회기반시설구축	781	444
Action 02:고등교육 및 R&D	675	56
Action 03: 방위 및 치안	825	700
Action 04: 문화유산관련 사업	406	214
Program: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진정책	5,645	-
Action 01:중소기업대출	225	-
Action 02:공공조달확대	1000	-
Action 03:중고자동차 대체 신차구입	220	-
Action 04:소기업 고용증진정책	700	-
Action 05:해고 및 실직자 지원	500	-
Action 06:전략적 투자 펀드 기금(FSI) ¹⁾	3,000	-
Program: 건설지원 및 사회연대책임	1,520	147
Action 01:공공(임대) 주택 건설	210	80
Action 02:도시개발사업	200	0
Action 03:에너지친화주택사업	133	67
Action 04:난민수용소 관련 사업	217	-
Action 05:사회적연대소득	760	-

주: 1) 2009년 200억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유가증권: 140억 유로, 현금: 60억 유로), 중소기업 지원과 프랑크 전략적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형성하여 2년 안에 회생 가능한 기업 지원과 원칙적으로 기업의 소수지분 인수를 원칙으로 제시

자료: Plan de Relance

○ 규제완화정책

- (한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 주택건설투자를 위해 관련 규제:Red Tape Reduction를 한시적(2010년까지)으로 완화
- (시장지향적인 행정시스템) 행정절차 간소화, 신고기간 완화 등 기업의 경제 및 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PPP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사업 자금조달

○ 지방정부 지원방안

- 부가가치세보상기금(FCTVA)의 조기집행을 통해 25억 유로 지원
- Strategic Investment Fund로부터 80억 유로를 공채 형태로 지원, 이 지원금액은 주로 철도, 에너지, 교육 등 인프라 시설 투자에 지출 예정

Box3: 부가가치세보상기금(FCTVA)

- 부가가치세보상기금(FCTVA)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설비를 할 때 국가에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를 일정 기간 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되돌려 주는 기금으로, 다시 설비부문에 투자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1954년 4월 10일 프랑스가 세계 처음으로 신설한 조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1975년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교부금을 부여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보상기금(FCTVA)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8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보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도 부가가치세보상기금(FCTV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제회복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지출이 2009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191억 유로, 2010년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10억 유로임
- 프랑스 정부는 이 정책이 2009년까지 한시적인 것이므로, 2012년부터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

<표 IV-9>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이 프랑스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10억 유로)

	Plan	Impact on the Budget Deficit	
		2009	2010
Public revenue	10.5	9.2	-0.5
National expenditure	11.5	9.9	1.6
Expenditure of the social administrations	0.1	-	-
Investment of the public companies	4.0	-	-
Total	26.0	19.1	1.0

자료: Plan de Relance

○ 재원조달방안

- 경제회복정책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액을 100억 유로 증액 발행하여 중장기 국채발행액은 총 1,450억 유로임
- 이로 인한 국채이자증가액은 21억 유로로 총 230억 유로임

<표 IV-10> 2009년 프랑스 국채

(단위: 10억 유로)

Financing requirement	
Long-term debt redemption	63.4
Medium-term debt redemption	47.4
Other commitments by the State	1.6
Budget deficit	79.3
Total Financing requirement	191.7
Financing sources	
Medium- and long-term issuance (OAT/BTAN) net of buybacks	145.0
Cancellation of State securities by the Caisse de la Dette Publique ¹⁾	2.5
Net changes in BTFs	23
Change in treasury correspondents' deposits	-
Change in Treasury account	19.0
Change in Treasury account	2.2
Total Financing sources	191.7

주: 1)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 operates as an administrative public agency under the authority of the French government. It provides accounting and financial information for financial markets. The company also issues French inflation linked bonds. The company is authorized to convert its domestic debt into euro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timetable established by the French Treasury. Its resources primarily consists of the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which levies tax on various types of income, both wage and capital. The company was founded in 1996 and is based in Paris, France.

자료: Plan de Relance

□ 추가적인 경기부양책과 세입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수정예산 (PLFR(2)) 발표 - 2009년 3월 4일

- INSEE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은 프랑스 정부의 1차 경기부양책(260억 유로)이 금융계의 자금 유동성 결여로 인해 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함('09년 3월)
- 제2차 수정예산안(PLFR 2)에서는 1차 수정예산안(PLFR1, LFR)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을 비판적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위기 대응정책 발표

- Les mesures du PLFR(2): 추가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 재정적자는 1,038억 유로로 증가
 - Pacte Automobile:자동차산업 협정 (69억 유로 지원)
 - (2009년 2월 9일)
 - 자동차산업 경영 관련 용자지원: 65억 유로
 - 혁신기술투자관련 용자지원: 1억 5천만 유로
 - 자동차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지원: 2억 4천만 유로
 - ※ 프랑스의 자동차산업지원정책은 EU의 경쟁법(Competition Rule) 위반가능성이 높아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
 - Les suites du Sommet Social:사회투자기금조성 (26억 유로 지원)
 - (2009년 2월 18일)
 - 소득세 감세정책: 11억 유로
 - 서민지원기금: 8억 유로
 - 중산층 보호 및 지원: 4억 5천만 유로
 - 물건구매권(bons d'achat) 지원: 3천만 유로
 - 경제위기 악화로 추가적인 세입 감소 예상 (2월 수정치보다 75억 유로 감소한 2,665억 유로(일반회계기준)로 예상)